

“최신폰 부담 줄여볼까”…중고폰 매매 급증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 급감…중고시장 年 1천만대 수준

이통사들, 매입 서비스…개인정보 유출차단 프로그램도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중고폰을 판매함으로써 새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려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성능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과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발효로 인한 단말기 지원금의 급감이 맞물리며 국내 중고 휴대폰 시장은 연간 1000만대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는 사실 중고폰 매입업체와 온라인 등에 집중됐던 중고폰 매입이 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물론 우체국, 생활용품 매장, 인터넷 서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체들로 확대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더욱 손쉽게 쓰던 전화를 처분할 수 있게 됐다.

KT는 2012년 3월부터 ‘올레그린폰’이라는 이름으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보상 매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의 올레매장에서 가격 정찰제를 운영하고 있어 가격이 수시로 바뀌고 광고 가격보다 실제 보상가가 훨씬 못 미치는 일부 사실 중고폰 매입업체와 비교하면 신뢰도가 크다는 것이 KT 측의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최근 매입되는 중고폰은 2012~2013년 출시된 스마트폰이 대부분으로 갤럭시S3와 갤럭시S4, 아이폰5, 아이폰5S 등이 70%에 달한다”며 “고객 대부

분은 5만~30만원의 보상금을 최신 휴대전화 구매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전국의 매장에서 중고폰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장에 방문한 고객은 상담사와 협의해 팔고자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등급을 분류한 뒤 매입가를 안내받을 수 있다. 매입 단말기의 시세는 LG유플러스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에서 매달 업데이트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세계 최대의 데이터 영구 삭제 전문 업체인 핀란드의 블란코사와 제휴해 데이터완전삭제 서비스를 제공, 개인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고 단말기는 개인정보 등 저장된 데이터의 영구 삭제가 아닌 단말 초기화 과정만 거친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신사의 경우 단말기 내 정보 복원을 불가능하

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쓰던 휴대전화를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SK텔레콤도 SK그룹 계열사인 SK주식회사 C&C 등과 제휴해 대리점에서 중고폰 매입을 진행하고 있고, 인터넷 서점 알라딘,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의 전국 127개 매장, 전국 우체국 220여 곳에서도 중고 휴대전화 매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편, 한국갤럽이 작년에 내놓은 ‘중고폰 시장 소비자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폰을 판매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약 10명 중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폰을 처분하지 않는 이유로는 어떻게 팔아야 할지 몰라서(21.0%), 처분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아서(17.2%), 저장된 데이터 때문에(13.9%), 처분하기 번거로워서(12.7%),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 같아서(12.7%) 등이 꼽혔다. /연합뉴스

인터세이브, 모바일게임 ‘영웅의 시대’ 출시

안드로이드 버전 첫 선

1000만원 경품 이벤트도

인터세이브(대표 이갑형)는 3일부터 모바일 AOS 장르의 실시간 대전게임 ‘영웅의 시대’ 오픈 베타 서비스(OBT)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영웅의 시대’는 전사·법사·지원·방어 등 4가지 유형의 영웅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게임으로, 지난 8월 3000여명의 게이머와 함께 진행한 클로즈베타(CBT)를 통해 밸런스 및 게임성에 대한 합격점을 받아냈다.

다양한 능력을 갖춘 영웅을 수집하는 것뿐 아니라 영웅별 특색 있는 스킬을 설정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인터세이브는 ‘영웅의 시대’ 오픈 베타



타를 기념해 캐릭터의 10 레벨을 달성시 추천을 통해 1000만 원 상당의 경품(노트북 5대·갤럭시기어S 10개·문화상품권 500장)을 제공한다. 또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캐시(보석 500개)도 500명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안드로이드 버전을 우선 출시한 ‘영웅의 시대’의 자세한 정보는 공식홈페이지(http://aoh.webg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LG, 獨가전전시회 ‘HbbTV 2.0’ 시연

LG전자가 오는 4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전시회 ‘IFA 2015’에서 ‘HbbTV 2.0’의 HDR(High Dynamic Range) 영상을 시연한다고 2일 밝혔다. 관객이 LG 올트라 올레드 TV로 HDR콘텐츠를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KCC·CA·원장 송성각)이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송영상 콘텐츠 마켓 ‘국제방송영상경연대회(Broadcast Worldwide·이하 BCWW 2015)’가 오는 9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BCWW 2015’

아시아 최대 방송영상 콘텐츠 마켓 열린다

콘텐츠진흥원 주관 ‘BCWW 2015’…9~11일 서울 코엑스

에는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 190개 전시사·바이어 2200여 명이 참여, 각국을 대표하는 방송영상콘텐츠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384개 부스를 차릴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KBS, MBC, SBS 등 지상파를 비롯해 종편사와 독립제작사, 배급사들이 주요 전시사로 나선다. 해외 전시사로 중국 CITVC와 Huace Film&TV, 영국

BBC Worldwide, 일본 Fuji TV 등이 참여한다.

올해 BCWW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드라마 장르를 중심으로 국내외 바이어와 셀러들을 위한 B2B 매칭에 집중할 예정이다.

‘BCWW 2015’에서는 세계 방송콘텐츠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미디어 콘퍼런스도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스마트폰으로 ‘똑똑한 우리집’ 만든다

정수기·보일러·보안 상품…

사물인터넷 제품 잇단 출시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이 확산하면서 보안업체와 생활가전·보일러업체 등이 너나 할 것 없이 ‘똑똑한 집’ 만들기에 뛰어들고 있다.

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가전업체들은 최근 통신사와 제휴해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적용한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생활에서 이용하는 여러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최근 가정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홈 IoT’가 주목을 받고 있다.

생활가전 대어전문 업체인 청호나이스·교원헬스 등은 SK텔레콤과 협력해 10월에 IoT 기능을 적용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제품을 단순히 집 밖에서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넘어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성능과 위생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단순히 외출한 상태에서 집안의 공기청정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공기 질을 측정해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기기에 이상이 생기면 기기가 스스로 감지해 소비자에게 알릴 메시지를 보내는 식이다. /연합뉴스

정수기 대어 업체 1위인 코웨이는 이미 올해 IoT기술 결합 제품인 아이오케어(IoCare)를 내놔다. 이 제품은 물이 지나가는 길과 정수된 물이 저장되는 수조를 정수기가 스스로 살균하고 지난 살균 날짜를 알려주는 제품이다.

보일러업체 역시 IoT에 뛰어들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최근 LG유플러스와 보일러를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실내온도 조절기 판매 제휴를 맺었다.

기존에 귀뚜라미 가스보일러를 쓰던 고객은 보일러를 바꿀 필요 없이 이 조절기만 구입하면 집 안팎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일러 전원·온도·예약기능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면 보일러가 스스로 진단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경동나비엔 역시 올해 스마트폰 원격제어 보일러인 ‘나비엔 스마트 톡’을 내놔다.

보안업체도 이런 IoT 열풍의 한가운데 있다. 에스원은 SK텔레콤과 제휴를 맺고 올해 안에 ‘세콤 홈블랙박스’ 등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세콤 홈블랙박스는 공동주택 전용 보안 상품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집의 방범상태를 설정·해제할 수 있다. 누군가 침입하면 바로 고객 스마트폰으로 알람 메시지가 전송되고 긴급출동 서비스로 연결된다. /연합뉴스

펜션·전원주택단지

캠핑장·미술관·체험학교·식당
야외결혼식장·연수원·요양원·찻집

관광특구!
투자가치 확신!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토 9168평, 건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죽녹원/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처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
- 차후 형질변경 가능
도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귀농/귀촌 전남지역 1순위 지역
- 감정가 - 28억 / 시세 30억 정도
- 매매 22억(법인체 인수 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년후 20억이상 대출 가능

경매 투자

▶ 특수비법 배우실 분!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임장비 등등
1200만원

▶ 단독/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1억원 이상
수익률-연 20% 이상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